

현안 관련 브리핑

2020.6.10(수) 15:30, 여상기 대변인(통일부)

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,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 하였습니다.

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,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끝>